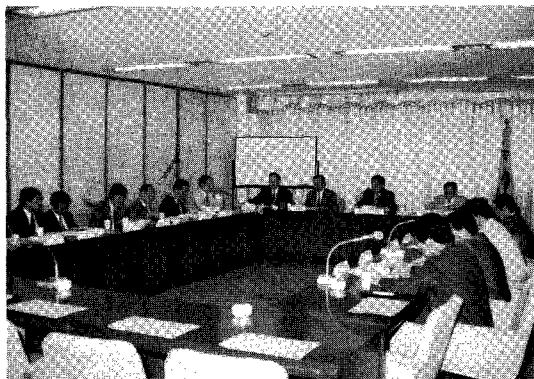




'94년 제3차 이사회 개최 신규임원 보선 승인



본회 '94년 제3차 이사회가 지난 12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94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에 이어 5월 이후 협회주요업무 추진보고와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부의안건으로는 △분회설치 승인건, △임원

보선 승인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기타사항으로 지부, 분회 설치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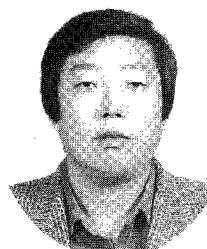
분회설치는 진천육계분회(분회장 반명수)와 청주육계분회(분회장 조영래)가 각각 승인을 받았고 퇴직임원에 대한 신규이사 선임내역은 아래와 같다.

신규이사 선임 내역

성명	직명	사 유
최원악	부회장	· 현 이사를 부회장으로 직위변경 · 육계분과위원장
강석부	이 사	부회장, 육계분과위원장에서 이사직으로 직위 변경
최길영	이 사	신규, 이사(육계), 영남농장(수원) 대표
강용식	이 사	신규, 이사(육계), 원농장(천안) 대표
김상길	이 사	신규, 이사(체란), 현 광주체란분회장
천강균	이 사	신규, 이사(체란), 애농원(수원) 대표
엄재국	감 사	신규, 영농장(육계, 여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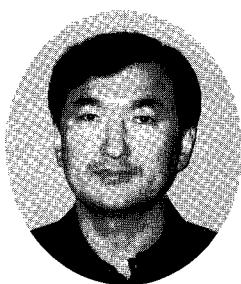
△최원악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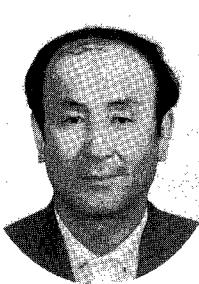
△강석부 이사



△최길영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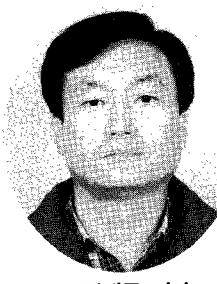
△강용식 이사



△김상길 이사



△천강균 이사



△엄재국 이사

제 7 회 전국육계인대회 성료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는 지난 21, 22일 양일간에 걸쳐 동학산장(충남 공주 소재)에서 육계인 및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7 회 전국육계인 대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육계산업의 국제화 대처방안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육계인의 친선 도모로 조직을 활성화함은 물론 육계사양기술 강좌를 통한 동절기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마련되었다.

최원악 위원장의 대회사와 최준구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발표된 세미나에서는 “국내 가금 질병의 발생현황과 방제대책”을 주제로 가축위생연구소 김기석 과장이, “동절기 육계 사양관리”를 주제로 축산시험장 가금과 이상진 연구관이 각각 발표가 있었다.

한편, 지난 '90년 2월부터 부회장 겸 육계분과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육계산업에 공로가 인정된 강석부(부엉농장)씨에게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육계분과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신현조(제일농장), 이규행(가송농장)씨가 각각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대회는 (주)중원농장이 후원하였다.
(본문 44, 45페이지 참조)

일회용 종이난џ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 수도권 상인연합회에

본회가 지난 9월21일부터 위생적인 계란유통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종이난џ 사용”에 있어 최근 일부 상인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 상인연합회에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였다.

-다 음-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회와 사전 협의한 바에 의거 '94. 9.21부터 계란 유통시 일회용 종이난џ만을 사용키로 하고 귀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힘입어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3. 아직까지도 일부 비협조적인 유통상인들이 난

좌의 부피가 크고 규격이 차에 맞지 않는다는 등 사리에도 맞지 않는 각종 이유를 들어 일회용 종이 난좌 사용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모처럼 성숙된 위생적인 계란유통 체계가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큽니다.

4.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 귀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오니 업무상 많은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양계협 제175호 ('94. 9. 6)로 귀회에 통보된 일회용 종이난좌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귀회 소속 회원에게 다시한번 숙지시켜 일회용 종이난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배합사료 가격 인상추진 철회요청

본회를 비롯한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배합사료 가격 인상이 대두됨에 따라 농림수산부에 배합사료 가격 인상추진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 의 서-

국정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이 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 축산업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위해서는 생산비 인하를 통한 경쟁력제고가 선결 과제인데 이런 시점에서 배합사료업체에서 배합사료 가격을 5%정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양축가들은 절망감과 함께 이 땅에서 축산업을 생업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95년부터 축산물의 전면 개방과 불안정한 경영여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야말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고, 올여름 사상유례없는 무더위와 가뭄에 따른 양축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양축가의 실상을 외면한채 흑자경영을 일관해온 배합사료업체들이 영리에만 급급한 졸속한 발상이 아닐 수 없어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동안 사료의 제조경비, 원료비, 물류비, 일반

관리비, 환율 등이 인상되었다고 하나 이를 모두 양축가에게 전가하여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큰 잘못이며 이는 경영개선, 제도개선 등을 통해 흡수되어야 할 문제로, 이러한 노력없이 가격인상이라는 안이한 방법만을 택한다면 축산물 생산비 인상을 통한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축산물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동반자 관계인 양축가와 배합사료업체가 공멸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적용 되지않는 상태에서 사료 가격인상을 묵인한다면 정부가 발표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은 축산물생산비 이상을 유발시켜 원유가격인상 등 농가의 축산물 판매가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될 경우 수입개방시점에서 정부의 경쟁력 제고 대책에 역행함으로써 우리 축산업이 더욱 어려워 질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축산농민이 있어야 배합사료 업체도 존립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직시하시어 배합사료 가격인상은 반드시 저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면 시장 개방을 목전에 두고 우리 양축가, 정부, 관련업계, 학계가 합심하여 생산비 인하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축산업은 존립자체가 불가능한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다소 어려움이 내재해 있더라도 함께 동참하여 우리 축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존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 추진이 백지화 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하오니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994. 10. 26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강성원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룡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

제3차 검정위원회 개최 제41회 육용계검정 최종성적 발표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6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검정위원회 회의록 요약보고와 업무추진 사항 보고에 이어 제41회 육용계검정 최종성적을 검토하였으며 제27, 28회 산란계검정 중간성적을 검토했다.

제41회 육용계 검정 최종 검토에서는 여름의 이상기온으로 체중과 평균증체량 등에서 큰 감소를 보였으며 제27회 산란계 중간 검토에서도 폐사율과 산란율에서 크게 감소함을 보였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생산성 낮은 노계도태 절실



10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봉)가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추석이후 약세를 예상했던 난가가 지난 여름의 여파로 계속적인 고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노계군들에 의해 앞으로 난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노계도태를 서둘러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종이난좌 사용이후 실용화가 덜되고 있는데는 상인들의 비협조는 물론 홍보 부족에 따른 문제성을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그동안 결원된 임원선출에서는 김상길 광주분회장과 천강균(수원분회) 사장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전국채란인 대회를 11월4, 5일 양일간에 걸쳐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가질 것을 결정했다.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가격안정위한 노력 당부



10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피해가 종계군에 초산지연, 산란율 저하, 수정율 저하 등으로 나타나며 양계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침에 따라 안정적인 가격유지에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함을 강

• 대한양계협회 소식

조했다.

또한 9월15일 부터 시행된 종란의 수입위생 조건 강화이후 종란 등 양계산물의 수의계통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현실에 접근한 검역활동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했다.

부산 · 경남지부 제1회 양계인 수련 및 단합대회 개최



본회 부산 · 경남지부에서는 지난 10, 11일 양일간에 걸쳐 산청청소년수련원(경남 산청 소재)에서 양계인 상호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 본회 최준 구회장을 비롯한 양계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양계인 수련 및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제5회 채란양계인대회 및 계란유통 개선 방안 토론회 11월 4, 5일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본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봉)는 11월 4, 5일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제5회 채란

양계인 대회 및 계란유통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회설치

지난 12일 제3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분회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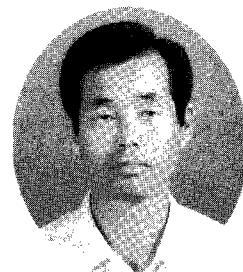
진천육계분회



△ 반명수

- 분회장 : 반명수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507-3
- 전 화 : (0434)33-0790

청주육계분회



△ 조영래

- 분회장 : 조영래
- 주 소 : 충북 청주시 개신동 431
- 전 화 : (0431)65-8763